

이명박 대통령 당선

광주·전남 주민 반응

“경제 살리고 균형발전 힘써달라”

“공교육 정상화·양극화 해소를” 기대와 다른 결과에 서운·착잡

제17대 대통령 선거 당선자가 확정되자 광주·전남 지역민들은 새 대통령이 경제를 살리고, 지역 균형 발전에도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공교육을 살리고 사회 갈등을 해결해 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19일 광주역·터미널·시내 주점가 등지에서 개표방송을 지켜보던 유권자들은 오후 6시 발표된 출구조사와 개표 결과가 내심 기대와 다르게 나타나자 착잡한 표정이 역력했다. 오랜 지역 차별을 딛고 DJ를 대통령으로 만들었으며, 노무현 정권을 탄생시켰다는 자부심 때문에 실망도 컸다.

호남 출신이 당선되지 않은 점에 대한 서운함이 적지않았기에, 새 대통령에 대한 당부는 지역갈등을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이루게 해달라는 목소리들이 높았다.

주부 이규순(59·광주시 남구 진월동)씨는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모든 지원과 정책이 균형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교대행정자인 김병환(30·광주시 남구 방림동)씨도 “호남고속철도 조기 완공 등 지역 현안들을 해결해 주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도 먹고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대통령이 됐으면 한다”고 희망했다.

신상호(49·광주시 북구 용봉동)씨는 “공교육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해 대한민국 학부모들은 애들 학원비 벌려고 허리가 휘 질경이”이라며 “아이들이 학원에 가지 않고도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공교육을 바로 잡아달라”고 말했다.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최은순(44) 지부장은 “사회 양극화가 가속되면서 교육 양극화 현상도 빚어지고 있다”면서 “공교육을 정상

화시키고, 공공성에 가치를 둔 교육 정책을 펴 교육 양극화를 줄여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사회 양극화 해소도 새 정부가 풀어야 할 화두로 지적됐다. 광주 YMCA 남부원(48) 사무총장은 “무조건적인 경제발전이 아니라 사회 양극화를 해결하면서 모두가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게 차기 정부의 할 일”이라며 “이제는 내 편 내 편

을 가르기보다는 고루 행복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택시운전사 김영수(36·광주시 동구 소태동)씨도 “서민들은 평생 모아도 집 한 채 살 수 있는데 차기 정부에서는 획기적인 부동산 대책이 나와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새 대통령의 평화 통일에 대한 노

력을 요구하는 바람도 많았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했던 ▲6·15 공동선언 구현 ▲군사적 긴장 완화 ▲남북경협 확대 ▲국제무대 공동노력 등을 지속적으로 실현해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을 앞당겨야 한다는 것이다.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기광서(45) 교수는 “평화로운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남북관계가 단절 없이 지속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면서 “미국에 의존하는 외교에서 벗어나 균형 외교를 통해 국익을 쟁기고,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제17대 대통령 선거일인 19일, 유권자들이 광주시 서구 양2동 제2투표소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시민들은 새 대통령이 지역 갈등의 고리를 끊고 균형발전과 경제회복에 전력을 다해줄 것을 바랐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비정한 20대 엄마

‘칭얼댄다’ 딸 목 졸라 의식 불명

한밤중 잠이 깨어 울던 두살배기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목이 졸려 사경을 헤매고 있다. 광주 북부경찰은 19일 칭얼거리는 딸을 의식불명 상태에 빠트린 신모(여·20)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이날 새벽 3시께 북구 운암동 집에서 안방을 어지럽히고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19개월 된 딸을 벽으로 밀쳐 목

을 조른 혐의다. 신씨의 딸은 동거 중인 김모(26)씨에게 발견돼 인근 H병원으로 옮겨졌을

사 상태가 심각, 전남대병원으로 다시 이송됐으며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형 기자 golee@kwangju.co.kr

경찰 조사결과 신씨는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김씨와의 사이에 1남1녀를 낳아 키우고 있는데, 이날 딸이 밤 늦게 울면서 잠을 깨우자 순간 화가 나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신씨는 딸 얼굴과 팔 등에 상처가 있는 것을 이상히 여긴 H병원 의사의 신고로 붙잡혔다.

투표 길 교통사고 장흥 老부부 사상

오토바이를 타고 투표를 하러 가던 노부부가 교통사고로 1명이 숨지고 1명은 중상을 입었다.

19일 오전 8시55분께 장흥군 대덕읍 가학리 군도에서 이 마을 김모(72)씨가 운전하던 100cc 오토바이와 이모(36·광주시)씨가 운전하던 스포츠카 승용차가 정면 충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김

씨가 현장에서 숨지고 뒤에 타고 있던 아내(70)가 크게 다쳐 전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 부부가 이날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읍내 투표소로 가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승용차 운전자 이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

해남군수 보선 특정후보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 대량 발송

곡성선 확성기 들고 소란

19일 군수 보궐선거를 치른 해남에서 투표 당일 특정후보로 지지해달라는 문자메시지가 대량으로 발송돼 선관위가 수사에 나섰다.

해남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55분께 발신자 표시 없이 해남을·면 협의회장 등에게 ‘기호×번 000 마지막 힘을 주십시오. 꼭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발송됐다는 것이다.

현행 선거법에는 투표 전날 자정을 기해 모든 선거운동이 금지돼 있다. 해남군 선관위 관계자는 “이 문자메시지가 특정후보 지지 호소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상대방 축을 선거법

위반 등 공지로 몰려는 의도인지 발신지 추적·조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곡성경찰은 지역 투표소 3~4곳을 돌며 확성기를 들고 유인물을 나눠주는 등 소란을 피운 ‘주암댐 방류피해 대책위원회’ 박모(51)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자신의 무소 승합차에 확성기를 부착해 투표소 입구에 세워두고 ‘지난 9월 주암댐 방류로 피해를 입었는데 대선 후보들이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며 발송하고 한국수자원공사를 비난하는 내용이 적힌 유인물 등을 유권자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드러났다.

/해남=박정욱기자 jopark@

실연 비관 고교생 투신 자살

여수 모 아파트서

지난 18일 밤 10시21분께 여수시 M아파트 앞 화단에 여수 모 고교 1년 A(17)군이 숨져있는 것을 여자친구(17)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여자친구는 “울지마라. 행복하게 잘살아. 휴대전화는 아파트 창문에 올려놓을게”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와 감쪽놀라 A군의 아파트에 와보니 화단에 떨어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A군은 올 3월부터 여자친구와 사귀어 오다 지나치게 집착한다는 이유로 지난달 헤어진 후 괴로웠으며, 투신장소에 놓아둔 일기장에도 ‘헤어져 힘들다. 너 없으면 죽겠다’는 글들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가족들의 진술 등에 따라 A군이 실연을 비관, 자살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a dental clinic (Dentist) with contact information and services listed.

나원참 (7388) 김장동



Advertisement for KCC (Korea Computer Center) services, including software and system solutions.

MP3 절도 대선 때문에 ‘들름’

○~대학 도서관에서 물품을 훔친 한 대학생이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둔 경찰의 일제 검문검색에서 탈피.

○~광주 북부경찰에 따르면 전북 S대학교 김모(26)씨는 지난 18일 오후 4시30분께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도서관에서 이 대학 재학생 박모(26)씨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시가 30여만원 상당의 MP3 플레이어를 몰래 가져갔다는 것.

○~경찰은 대선을 하루 앞둔 이날 밤 일제 검문검색을 하던 중 집으로 돌아가던 김씨의 가방에서 MP3를 발견하고 출처를 물었으나 김씨가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추궁 끝에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고.

○~김씨는 “열람실에서 친구를 찾아다니던 중 책상 위에 놓여 있는 MP3를 보고 순간 탐이 났다”고 진술.

/이중형기자 golee@kwangju.co.kr

Large advertisement for a water purifier, highlighting features like '398,000 won special price' and '3-year warranty'.

Advertisement for TEMPIA air conditioning units, featuring a bar chart showing energy savings and promotional offers.